

보성, 베트남 계절근로자 송출 본격 추진

박리에우성 부위원장 보성 방문... 농어업 인력 · 문화교류 확대 기대

보성군은 지난 11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 협약체결을 위한 실무회의를 위해 베트남 박리에우성 인민위원회 후인 지 응웬(Huynh Chi Nguyen) 부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 7명을 보성군에 초청해 교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회의는 농어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국제 협력 확대, 보성군과 박리에우성 간 첫 공식 교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번 방문을 통해 우호 방문을 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군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에는 약 1,4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방바아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이 주를 이뤘으나, 앞으로는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라오스 등 송출국과의 MOU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가 수요에 맞춘 인력

배치와 함께 인권 중심의 근로 환경 조성 및 관리 시스템 강화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이번 교류를 통해 송출국 다변화, 계절근로자 수급 안정화, 글로벌 농어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됐다.

향후 두 지역 간 실무진 교류, 현지 교육 협력, 문화 교류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 후속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앞으로도 계절근로자 제도를 지어 실정에 맞게 발전시키고,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철우 군수는 “보성군에는 베트남 출신 근로자가 가장 많으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농가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앞으로도 인권을 최우선으로, 외국인 근로자께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후인 지 응웬 부위원장은 “보성군이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터가 돼 감사하다”며 “일시적 인력 교류를 넘어 보성과 박리에우성 간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 모델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보성=장국도 기자

“어린이날,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서 대탐험”

내달4~6일 풍선 장식 등 행사 어린이들 색다른 경험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에서 ‘기차마을 대탐험! Hi Fun Balloon Festival’ 특별 이벤트가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이벤트 기간 섬진강기차마을 전체가 마법 같은 풍선의 나라로 변신한다. 기차마을 곳곳이 다양한 캐릭터와 각양각색의 풍선 장식으로 꾸며져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무대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5월 5일 어린이날 당일 중앙무대에서는 디즈니 OST 콘서트, 일루전 매직쇼, 명작 아동 뮤지컬 ‘별가뱃은 임금님’ 등 흥미롭고 수준 높은 공연이 열리고 행사기간 내내 버스킹 공연으로 마술쇼, 버블쇼, 풍선아트 공연이 펼쳐진다.

체험 행사로는 ‘페이스 페인팅’, ‘풍선아트’ 등 7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특히 ‘애완조류 체험전’, ‘어린이 목공예 체험’, ‘이동식 천문대’와 같은 이색적인 코너가 마련되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다.

참여형 이벤트로는 ‘인기 캐릭터 페레이드 및 포토타임’, ‘랜덤 플레이댄스’, ‘SNS 인증샷 이벤트’, ‘보물찾기 이벤트’가 마련되어 더욱 풍성한 즐거움을 제공할 것이다.

곡성군 관광과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행복찬 추억과 즐거운 꿈을 선사하기 위해 올해 처음 풍선을 주제로 특별하게 준비했다”며 “환상적인 풍선의 세계에서 맘껏 뛰놀며 잊지 못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곡성=홍경백 기자

곡성, 위기 가구 발굴

특별 기획 조사 실시

곡성군은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주소주거자의 실적으로 소득상실, 질병 등의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 상황에 있는 가구에 지원하였던 긴급복지지원 수혜 대상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특별 기획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일시적인 긴급복지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추가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하여 추진한다.

곡성군은 올해 2월에서 3월까지 행복e음 위기 정보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 4,617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가구별 생활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총 3,223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다.

군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의 소득, 재산, 금융 상태를 확인하고, 이후 방문·상담을 통해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 등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 조사를 통해 더 많은 위기 가구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곡성군은 하반기에도 긴급복지지원 수혜 대상자를 대상으로 특별 기획 조사를 추진하여 더 많은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 민·관합동

집중안전점검 실시

순천시는 관내 노후 및 고위험 시설물에 대한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관부서 공무원, 건축·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안전보안관 등으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추진된다.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건설현장,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취약 시설 및 위험시설 7개소에 점검 대상으로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시설의 작동 여부, 재난취약 요소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사용 제한, 긴급 보수·보강 등 긴급 안전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주변의 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 스스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자율안전점검표를 통해 내 집, 내 점포의 안전에 대한 직접 점검도 가능하다.

순천, 구직단념청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 본격 시행

심리상담부터 취·창업 연계까지...최대 350만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원

순천시가 구직단념청년의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기실업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구직 활동을 단념한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신감 회복과 구직 의욕을 높여 사회 진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120명이며,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창업·교육·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18~45세의 미취업 청년 및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이다.

프로그램은 △심리상담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 역량강화 △취·창업 연계까지 단계별로 제공된다.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 과정으로 구성되며, 각 과정에 따라 최대 350만원의 참여수당과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직업훈련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등 다양한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순천=조순의 기자

광양시-구례군, 고향사랑 상호기부 ‘지역 상생 협력 실천’

광양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간 상생 협력을 위해 광양시와 구례군 양 지자체 공직자들이 고향사랑 상호기부에 동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상호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인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광양시와 구례군 소속 공직자들이 각각 350만 원씩 총 700만 원 규모의 기부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기부에 참여한 공직자들은 지역 농특산물로 구성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체험해봄으로써 상대 지역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제도에 대한 이



해를 높였다. 광양시와 구례군은 이번 상호기부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효과를 널리 알리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탁영희 광양시 총무과장은 “이번

상호기부는 지역 간 신뢰와 협력의 상징”이라며 “공직자들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조순의 기자

구례, 지리산권 영·호남 친선 노인 게이트볼 대회 ‘성료’

12개 시·군 24개팀 참가

구례군은 지난 11일, 구례군 공설 운동장에서 제27회 지리산권 영·호남 친선 노인 게이트볼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3개 도 12개 시군에서 360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지리산권 영·호남 친선 노인 게이트볼 대회는 1997년부터 실시됐으며, 12개 시군이 매년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사)

대한노인회 구례군지회(회장 손병관)가 주관하여 구례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12개 시군 총 24개팀이 참가했으며, 전남지역은 구례군·광양시·순천시, 전북지역은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경남지역에서는 진주시·거창군·남해군·하동군·함양군·산청군이 참여했다.

대회 결과 거창군 대표팀이 우승을 차지하며 영예를 안았고, 구례군이 준우승, 함양군과 광양시가 공동 3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손병관 (사)대한노인회 구례군지회장은 “승패를 떠나 우리 어르신들이 화합하고 우정을 다지는 자리를 만들 수 있어 너무 뜻깊고 모두가 건강하고 즐겁게 경기를 즐기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영·호남 지역 어르신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오광범 기자

순천, 전문건설업체 대상 법률위반 예방 조치 강화

신고 기한 초과·법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사전 차단... 540개 업체 안내문 발송

순천시는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운영과 건설업 발전을 위해 법률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행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정은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관련 법규 미숙지 및 바쁜 현장 업무로 신고 기한을 넘겨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업체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

로 예방하고 건실한 업체 발전을 위해 추진된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건설기술인 배치 ▲건설업 등록기준 상시 유지 등이 있으며, 업체들이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불이익 예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시는 건설업체 540여 개

소를 대상으로 주요 준수사항 안내문을 발송하고, 법무사 46개소에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안내를 진행했다.

또한, 배너를 제작하여 법원과 세무서에 비치했다. 앞으로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신규 등록을 위한 업체 방문 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순천=조순의 기자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 ‘11건 안건’ 의결

광양시의회는 14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 진행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조례 및 일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호기 의원) ▲광양시 장애인 전통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섭 의원) ▲광양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 조

례안(서영배(중동) 의원 등 9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고, ▲광양시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최대원 의장은 “시민 삶에 밀접한 조례들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조순의 기자

보성 ‘함께하는 마음 보듬이 교실’ 운영

의료 취약지역 어르신 ‘공감 소통’ 마음 건강챙기기 나서

보성군은 의료 취약지역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 8월부터 7월 11일까지 12주간, 관내 보건진료소 관할 6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진료소와 함께하는 마음 보듬이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건진료소와 보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력해 노년기 우울증 예방과 정서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노년기에는 신체기능 저하, 사회적 고립, 가족과의 이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우울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나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치료 기회로 조기 진단과 예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군은 사전 검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정서·인지 상태를 파악하고, 이후 12주간 정서 지원, 스트레



스 관리 교육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치매 선별검사와 함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개선 교육,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해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 많은 현실에서 이웃과 소통하고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트가 된다”며, “정서적 공감과 관계 회복이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보성=장국도 기자

광양희망도서관, 30일 ‘알록달록 풍선쇼’ 운영

광양희망도서관이 오는 30일 오후 5시, 도서관 뒤편무극장에서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4월 희망문화놀이터 ‘알록달록 풍선쇼’를 운영한다.

‘희망문화놀이터’는 문화예술훈 체험 기회가 적은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행사다. 도서관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4월에는 도서관 주간(4월 12일~18일)을 기념해 더욱 특별한 공연을 마련했다.

고예투스 공연팀의 ‘알록달록 풍선쇼’는 지팡이 꽃 등 다양한 요소를 풍선을 활용한 마술 공연으로,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와 가족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행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https://lib.gwangang.go.kr/>)의 ‘문화행사 안내’에 안내돼 있으며, 궁금한 점은 광양희망도서관(061-797-429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라 광양시 도서관과장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도서관을 찾아가 함께 웃고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에게는 도서관 주간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행사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희망도서관은 도서관주간을 맞아 ▲책을 두 배로 대출할 수 있는 ‘독서 두 배로 대출’ ▲연체자에 대한 대출 정지 해제 ▲사서가 직접 고른 도서를 소개하는 ‘사서 컬렉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광양=조순의 기자